

# 유·불사상을 통한 「단군신화」 인물형의 해석과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정 보 배(부산남고)

##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수신(修身)을 통한 웅녀의 특성<br>어인(得成於忍) |
| 2. 유학과 불교의 이상적 인간관                | 3) 왕도 실현의 기반이 된 환웅·<br>웅녀·단군     |
| 1) 수신과 상의 제거를 통한 본성<br>발현         | 4. 문학교육적 의의                      |
| 2) 군자의 감화와 보살의 제도                 | 1) 인성교육 측면                       |
| 3) 교민을 통한 이상향의 완성                 | 2) 고전문학 교육 측면                    |
| 3. 「단군신화」에 나타난 이상적 인<br>물형과 세계    | 5. 맺음말                           |
| 1) 환웅의 감화(感化)와 웅녀의 발<br>보리심(發菩提心) |                                  |

## 국문초록

본고는 「단군신화」의 주요 인물인 환웅과 웅녀가 유학과 불교에서 논하는 이상적 인물형인 군자, 보살에 매우 근접한 인물임에 착안하여 유불 사상의 인간관으로 이들을 재해석하고, 이의 문학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은 제자백가를 통달한 학승으로 당대 유학자들과 긴밀히 교류하였다. 그가 활약하던 고려후기는 국내외적 시대상의 특수성으로 유학자와 불승이 긴밀히 교류하기도 했다. 13세기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살아왔던 일연이 20여년에 걸쳐 편찬한 『삼국유사』의 가장 첫 머리를 장식하는

「단군신화」는 어느 특정한 사상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 대한 유교적, 불교적 의미는 여러 연구를 통해 솔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 의미를 기반으로 「단군신화」의 의미를 재해석한 연구는 없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사상과 문화 발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유학과 불교는 인간관과 세계관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이 매우 많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어떤 이야기보다 유학과 불교의 공통성이 잘 드러난다. 이는 여러 학문에 두루 통달한 일연의 작가의식과도 관련이 깊다.

본고는 유학과 불교의 공통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을 추출하여 이를 분석의 방법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단군신화」는 유·불사상이 추구하는 공통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주제의식으로 가진다. 라는 가설을 증명하고, 문학교육적 의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우리 민족 전통 사상인 유학과 불교의 융합을 통해 신화의 교육내용을 도출하였기에 학습자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인성적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단군신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 단군신화, 일연, 유·불사상, 융합적 사고, 환웅과 웅녀

## 1. 머리말

### 1) 문제제기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의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로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면서, 우리 민족의 시원(始原)을 담은 이야기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교육 이념의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21세기 현재 단일민족의 중요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단군신화」의 상징성과 중요성은 희미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함의한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정신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한 소중한 가치임은 분명하다.

『삼국유사』는 신이한 이야기들로 인해 허황하다며 유학자들의 거리낌을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일연이 불승이라는 이유와, ‘제석’이라는 각주로 인해 그동안 불교적 의미와 불교 포교 의도를 본질로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온 것이다. 실제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서적이기 때문에, 「단군신화」 해석에 있어 불교인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일연은 승려이면서도 “유가의 책을 섭렵하고 겸하여 백가를 꿰뚫어, 처방에 따라 사물을 이롭게 하고 신묘로운 쓰임이 중횡하였다.”<sup>1)</sup>는 평을 받은 당대의 학승(學僧)이었다. 아홉 살에 출가하였으나 본격적인 불가 입문은 열네 살 때부터이다. 고려 말의 학자 이제현의 말을 빌리자면, 무신의 난 이후 문인 학자가 많이 죽고 산 사람마저 절로 도망을 가, 사람들이 자녀교육을 시키려면 부득이 절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한다.<sup>2)</sup>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일연의 어린 시절 출가는 다분히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인다.<sup>3)</sup>

에드워드 슐츠는 고려의 최씨 정권 아래서 당대 선종 사찰이 학문의 중심이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1170년 무신의 난이 일어났을 때 지방으로 도망간 문인이나 학자들은 정치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혼란을 목격한 일부는 교리에서 위안을 발견했으며 정신적 해답을 불교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sup>4)</sup> 또한 그는 “최씨 정권이 수선사 등의 사찰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

1) 일연의 사후 고려의 유학자이자 신하였던 민지(閔漬)가 왕의 명을 받아 위의 내용을 담은 비문을 짓게 된다. 민지 찬, 고운기 옮김, 「고려국 화산 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각국존비 병서」, 『일연을 묻는다』, 현암사, 2006, 356면.

2) “무신의 난이 일어난 뒤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깊은 산으로 숨어 관대를 벗고 승복을 입은 채 여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 그 뒤 나라가 점차 문치를 회복했지만 학문에 뜻을 둔 선비들은 배울 곳이 없어 이 무리를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이 승려를 따라 배우게 된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신이 말씀드린 것입니다(고려사 110:22b~23a, 에드워드 슐츠, 김범 옮김, 『무신과 문신』, 글항아리, 2016, 222면에서 재인용함).”

3) 그의 비문에도 취학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고운기, 앞의 책, 79면.

서 … 사찰을 학습과 연구에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학자와 승려, 유교와 불교의 이러한 결합은 조선 왕조가 건국되는 동안 발전한 신유학을 예비하는 사상적 혼합으로 나타났다.”<sup>5)</sup>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씨 집권기에 등장한 뛰어난 문인들은 거의 모두 승려와 긴밀한 관계를 맺거나 사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지눌의 제자 혜심 등 유학에 뛰어난 승려도 많았음을 들어,<sup>6)</sup> 유학자들과 승려가 이 기간 긴밀한 학문적 교섭 관계를 가졌음을 주장했다.

실제 일연은 이승휴를 비롯한 당대 문인들과 어울리며 시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승휴는 기록에서 그를 ‘선문 운사’라 칭했다. ‘선문(禪門)’이 신분을 나타낸 것이라면 ‘운사(韻士)’는 시인임을 나타낸다. 그가 남긴 여러 저술의 성격상으로 볼 때에도 학승으로서의 성격이 다분하다.<sup>7)</sup> 무신정권 하의 특수성과 유학자와 승려의 긴밀했던 관계, 그 속에서의 일연의 생애와 저술 및 교유의 특징, 당대의 사상적 분위기 등으로 볼 때, 「단군신화」가 표방하는 주요 가치이자 이념인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가치가 불교적 의미 뿐 아니라 유교적 의미와도 상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단군신화」는 일연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왔다. 그러나 일연은 『위서』와 『고기』 두 사서를 인용하며 「단군신화」를 저술한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당대의 학자이자 일연과 교유한 바 있는 이승휴 역시 『제왕운기』에서 「단군신화」를 소개하고 있다.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이는 일연의 창작물이기보다는 오랜 연원의 신화

4) 에드워드 슐츠, 앞의 책, 221~222면.

5) 필자는 이러한 변화의 뿌리가 학자들이 선종과 도교, 그리고 유학을 동시에 추구하던 예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 비슷한 견해로 채상식(1991), 이원명(1989)이 있음을 언급했다. 에드워드 슐츠, 위의 책, 222면.

6) 이규보는 많은 사찰 여행을 글로 남겼으며 선(禪)에 관심이 많았고, 승려들에게 별호를 지어주기도 했다. 이인로는 무신의 난 직후 승려가 되었다가 복귀 후 과거에 급제한 이력이 있으며, 본인과 불교와의 연관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항, 김정은, 조이 또한 한 때 승려였다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관원의 삶으로 돌아왔다. 반대로 유학에 뛰어났거나 과거에 급제, 관직에 나아간 경력이 있는 승려로 혜심, 요세, 천책, 김지대, 윤위를 들 수 있다. 에드워드 슐츠, 위의 책, 222~223면.

7) 고운기, 위의 책, 318~319면.

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연 당대에도 지식인들이 「단군신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연이 승려라는 것으로 인해 불교적이라 보는 것과 「단군신화」나 고조선의 실존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삼국유사』를 격하시키는 시각일 뿐 아니라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라 비판되기도 한다.<sup>8)</sup>

많은 논자들은 일연의 『삼국유사』를 저술 동기나 가장 처음 「단군신화」를 집필, 수록한 것이 민족 주체성 고양을 목적으로 함을 주장한다.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단순히 불가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첫 머리에 「단군신화」를 수록하고 『삼국유사』를 집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당대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그의 학문적 성향으로 볼 때 토속적이고 원형적인 설화<sup>9)</sup>를 어떠한 깊이 없이 그대로 채록했으리라 추측하기도 힘들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왕력(王曆)과 「기이(奇異)」 편은 민족의 시원 혹은 건국 설화, 왕조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왕을 중심으로 민족의 정신적 결속을 통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면이 다분하므로 유가적이다. 또한 『삼국유사』 도처의 여러 불교적 설화들은 불교와의 관련성을

8) 정영훈은 이러한 의견이 사료의 지나친 소극적 해석 혹은 일제에 의한 왜곡의 의도가 남아 있는 것이라 보았으며, 학계의 다수 견해는 이 신화의 골조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 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들고 있다(정영훈, 「홍익인간사상과 한국문화」, 『한민족연구』 제8호, 2009, 100~101면). 한용진 또한 전한 시대 무씨사당 벽화가 단군신화 주요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들어 이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한용진, 「홍익인간의 문헌자료 비교 고찰」, 『한국교육사학』 15권, 한국교육사학회, 1993. 223면).

9) 「단군신화」를 토속적 관점, 혹은 인류 원형적 심상의 반영으로 본 연구는 많다. 황폐강은 “단군신화는 곡물재배기 문화가 꽤 높은 미개상층기의 선민들이…풍요와 다산을 바라고 구하여 기념, 재현하던 농경에 관련된 태초의 의식을 반영”한 다 언급했다(황폐강, 『한국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6, 88~89면). 원관념이 인간 행위, 보조관념이 자연 주기라 보는 것이다. 삼칠일, 백일, 쑥과 마늘을 질병, 귀신을 쫓는 풍습 등의 토속적 풀이나 민간풍습과의 관련성을 논한 해석 또한 무수하다(박지홍,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한겨레의 깊은 생각」, 『한글 새소식』 314호, 21면; 류위자, 「단군신화의 교육적 의미와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교대 석사학위논문, 2001, 27~28면 등). 본고는 고려후기 및 일연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단군신화」를 재해석하고자 하므로, 논의 방향을 유불사상과의 관련성 측면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결코 배제하고 「단군신화」를 바라볼 수 없게 한다.

이에 본고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 지식인이었던 일연에 의해 편찬되면서 유학과 불교의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로서, 기존 신화를 골격으로 하여 일연의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재구성, 재창작된 텍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단군신화가 일연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른 텍스트와는 달리,<sup>10)</sup> 그가 가진 유불사상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이 잘 녹아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일연에 의해 재탄생된 텍스트로, 유불사상이 추구하는 공통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주제의식으로 가진다.’라는 것을 본 연구의 가설로 삼아 「단군신화」를 유·불사상의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오늘날에 가지는 의의를 확인해볼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단군신화」 또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의미를 유학과 불교 각각의 관점으로 고찰했던 연구는 많았으나, 본고와 같이 유·불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 교육적 의의를 논하는 연구들 또한 텍스트의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우선 유학의 관점에서 「단군신화」를 살핀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태

---

10) 이승휴가 『제왕운기』에 수록된 단군 이야기의 서사적 골격은 ‘1. 환인의 서자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옴. 2. 환웅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며 단군을 낳음. 3. 단군이 조선의 왕이 되었으며, 신라·고려 등은 모두 단군의 후예임. 4. 단군은 1038년간 재위하다가, 아사달 산에 들어가 신이 됨.’으로, 『삼국유사』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환웅이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했다는 내용이 없고, 단웅 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한 뒤 단수신과 혼인시켜 낳은 아들이 단군으로 나타나고 있어 웅조전승(熊祖傳承)이 빠져 있다. 반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교체를 더욱 민족적 견지에서 해석하려 했으며, 단군의 후에 국가로 부여와 고구려 이외에 신라, 남북옥저(南北沃沮), 동북부여, 예맥(穢貊), 비류국(沸流國)까지 언급한다. 『삼국유사』에 비해 단군의 신화적 성격을 상당히 축소하고 국조 내지 민족의 시조라는 역사적 측면은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53~54면).

홍은 우리나라 건국신화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주장하며 다섯 가지 특성을 들었다. 건국 신화의 ‘역사화’, 주인공의 ‘인간화’, ‘천지인(天地人)’의 3단계구조 지향, 가족 중심 인간관계 중시 등이 그것이다.<sup>11)</sup> 건국신화 전승과 정착 과정에 유가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본고와 유사하나, 동북아 중 왜 우리 건국신화만이 그러한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나아가 「단군신화」의 ‘홍익인간과 ‘채세이화’의 사상은 맹자의 ‘양민’과 ‘교민’, 공자의 ‘대동사회’ 등과 유사함을 주장했다. 이 또한 고대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퍼져있던 원래의 「단군신화」가 장기간의 유교 영향을 받아 수용된 결과라 이해하였다.<sup>12)</sup> 「단군신화」와 유학의 관련성을 논한 본고와 유사하지만, 텍스트의 정치한 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불교와의 관련성을 논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윤성찬은 「단군신화」에 불교적 색채가 가미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역사서와 구비문학적 자료와 인도의 제석천 신화를 비교하며, 「단군신화」에 기록된 ‘제석’이 명칭의 차용 혹은 발음상의 유사성(혹은 동음)으로 인해 적혀졌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13)</sup> 허정희는 불교적 차원에서 「단군신화」가 꿈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산신이 되는 윤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탐욕을 동물이 가진 본능의 속성으로 본 것이라 하며, 석가모니의 깨달음보다 더 앞서 단군신화가 먼저 이를 드러내었다고 하였다.<sup>14)</sup>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동물의 속성을 인간 욕망으로 본 점은 본고와 유사하나, 「단군신화」의 가르침이 불교보다 먼저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교육적 측면에서 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선우미정은 ‘홍익인간’ 이념이

11) 임태홍, 「유교가 한국 건국신화에 미친 영향」, 『유교사상문화연구』 제29집, 한국유교학회, 2007, 269~301면.

12) 임태홍, 「단군신화에 나타난 유교적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0호, 한국유교학회, 2007, 165~202면.

13) 윤성찬, 「단군신화의 제석과 불교의 제석천의 연관성 연구」, 『단군학연구』 제34호, 단군학회, 2016, 73~91면.

14) 허정희, 「불교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단군사화의 사상」, 『윤리연구』 제49호, 한국윤리학회, 2002, 209~222면.

한국 교육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을 다각도로 지적하였다. ‘홍익인간’은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상생의 철학으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유교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 이념과 매우 유사함을 언급한 것은 본고와 일치한다.<sup>15)</sup> 최문형은 홍익인간의 이념은 ‘지금, 여기에서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모든 경우와 공존하여 공동체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설정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의 지향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도울 줄 아는 인간의 완성’이라 정리했다.<sup>16)</sup> ‘홍익인간’을 통해 이상적 인간과 공동체를 이끌어 낸 부분은 본고와 유사하나 이를 이끌어낸 근거나 배경이 부족하다.

이은자는 단군신화가 언어와 문화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구비문학텍스트라는 점에서 한국어교재에 적합한 유용한 텍스트이나, 문어적 요약 서사방식 그대로를 텍스트로 삼고 있어 교재의 상당수가 이러한 한국어 교육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문화교수 항목을 단계별로 배치하여 체계적 문화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7)</sup> 이 연구 뿐 아니라 최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측면에서의 단군신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8)</sup>

최성욱은 「단군신화」의 환웅과 곰은 그 사이에 가로놓인 존재적 격차를 역이용하는 독특한 상호작용을 전개함으로써 그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

15) 선우미정, 「교육이념인 ‘弘益人間’의 유교철학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70호, 동양철학연구회, 2012, 181~220면.

16) 최문형,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인간상과 한국교육의 지향처」, 『고조선단군학』 37호, 고조선단군학회, 2017, 281~311면.

17) 이은자, 「한국어교육을 위한 <단군신화>의 교육 방향」, 『Culture and Convergence』 39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285~312면.

18) 최근에 나온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윤선, 「한국문화교육 제재로서 설화의 선정과 교재화 방향」, 『고전문학과 교육』 31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113~143면.; 박계옥, 「중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과 문학치료학적접근 - 「단군신화」를 사례로」, 『국제문화연구』 9권 1호,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16, 119~139면.; 신승혜, 「중국 결혼이민여성 대상 상호문화교육 방안 - 한국과 중국의 신화를 활용하여-」 『중국학논총』 48호, 한국중국문화학회, 2015, 255~289면.

는 교육적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므로, 이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sup>19)</sup> 이는 환웅과 웅녀의 상호 영향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본 연구의 시각과 일정 부분 동일한 면을 지닌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단군신화」나 홍익인간은 여러 사상, 종교에서 주장하는 큰 종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매우 포괄적 이념임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과 불교의 동시적 영향, 혹은 이 두 사상과의 관련성을 함께 논한 연구는 없었으며, 인본주의 표방 측면에서 ‘홍익인간’을 지나치게 보편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단군신화」의 교육적 의의를 논한 연구들 또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관점에서만 그 의의를 도출할 뿐이며, 그마저도 텍스트의 정밀한 분석에 근거하여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가치를 면밀히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아쉽다.

본고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개인 일연의 사상적 특성과 고려 후기 당대의 사상적 특성을 근거로 「단군신화」를 유·불의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므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고는 「단군신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불의 이상적 인간관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텍스트의 정밀한 분석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단군신화」는 문학작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군신화」이 당대의 역사에 대한 은유라는 설은 많지만, 실제 신화를 통해 반만년 전 역사 실상의 정확한 재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상을 밝히는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바라보더라도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단군신화」이다. 이는 신화 속 욕망을 가진 인물이 행위를 통해 텍스트 전체의 주제의식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며, 이야기로서 이를 접한 독자들은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이념을 한 작품의 주제의식으로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독법은 문학과 문학교육의 존재 이유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유·불사상적 관점에서 단군신화를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단

19) 최성욱,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해석, 『교원교육』 33권 1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7, 131~154면.

군신화]가 오늘날에 가질 수 있는 문학교육적 의의 또한 도출될 것이다.

## 2. 유학과 불교의 이상적 인간관

선행연구를 통하여 「단군신화」는 유·불사상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유·불사상의 이상적 인간관을 정리하여 작품 분석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sup>20)</sup>

### 1) 수신(修身)과 상(相)의 제거를 통한 본성 발현

본 절에서는 유학과 불교의 각각에서 말하는 타고난 훌륭한 인간 본성,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 극복 방법 순으로 살펴보고 공통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21)</sup>

유학의 경우에는 공자와 맹자가 내용적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인간 자질의 선함을 우주 탄생과 운용의 근본 원리와 연결 짓지 않았다. 북송의 학자들에 의해 비로소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이 합일을 이루면서 인간 본성

20) 일연이 생존했던 시기는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따라서 2장 내용을 위해 유학의 경우는 사서(四書)인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살펴보고자 하며, 주희의 사상에 영향을 준 성리학 이전 북송과 원의 학자들의 사상, 이를 재정리한 조선 중기 이황의 『성학십도』도 부분적으로 참고한다. 불교의 경우 우리나라가 속하는 대승불교권의 주요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을 중심으로 『법화경』을 살펴보고, 불교 초기 경전인 『아함경』 또한 참고하고자 한다.

21) 본 논문에서 유·불통합적 관점으로 인간 본성, 군자형과 보살형 인물에 대해 논의한 주요 부분은 필자의 다음 글들에서 논의된 내용에 토대하고 있다. 정보배, 「판소리계 소설의 군자·보살형 인물에 통한 조선후기 소설 독자의 가치관 고찰」, 『동양정치사상사』 제18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148~153면.; 유학의 이상적 인간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 글에서 논의되었다. 정보배, 「인성교육을 위한 고소설 교육내용 연구」, 『교사교육연구』 56권 3호, 부산대 과학교육연구소, 2017, 296~298면.; 정보배, 「완판 판소리계 소설에 형상화 된 왕도정치의 이상과 민중의 염원」, 『한민족어문학』 제8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9, 117~154면.

의 훌륭한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염계 주둔이(濂溪 周敦頤)는 「태극도」에서 우주 탄생과 발전의 원동력을 태극이라 설명한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와 우주와 삼라만상이 탄생된 것이다. 인간은 이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우주의 정수가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선을 실현하기 충분하며, 이미 그 바탕이 갖추어진 존재임을 주장하였다.<sup>22)</sup>

오직 사람만이 음양오행(陰陽五行) 가운데 빼어난 기를 받아 가장 영묘하다. 형체가 생겨나면 정신이 지각을 일으키게 되니, 다섯 가지 본성이 외물에 감응되어 움직여 선과 악이 나누어지며 만사가 생겨나게 된다. … 성인은 천지와 그 덕이 합치되고, 일월과 그 밝음이 합치되며, 사계절과 그 차례가 합치되고, 귀신과 그 길흉이 합치되는 것이다. 군자는 중정인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양하므로 길하고 소인은 이것을 거스르므로 흉하다.<sup>23)</sup>

오행인 목·화·토·금·수 중에서도 빼어난 기를 받은 인간의 본성은 오행과 대응되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며, 맹자(孟子)의 사단(四端)이 그 출발점이다. 맹자는 모든 사람이 남에게 차마 어찌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인 지심(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이 네 가지는 사람이 사지(四肢)를 갖고 있듯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한다.<sup>24)</sup>

22) 정호는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천지간에 사람만이 지극히 영명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심은 곧 초목조수의 심이다. 다만 사람은 천지의 중을 받아 태어났을 뿐이다(이정전서 권1).”라 하고, “사람과 만물에는 다만 기의 편정(偏正)이 있을 뿐이다(같은 곳).”라 하여 사람과 만물을 기품의 중(中)을 얻었는가에 의해 구별하였다. 이동희, 『주자, 동아시아 세계관의 원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122면.

23) 李滉, 『聖學十圖』, 「太極圖說」, “惟人也得其秀而最靈。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通, 而善惡分, 萬事出矣。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 立人極焉。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君子修之, 吉, 小人悖之, 凶。”

24) 『孟子』, 「公孫丑」 上 6,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之掌上。 …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惻隱之心,

이러한 맹자의 사단설을 토대로 북송의 학자인 정복심(程復心, 1279~1368)은 「심통성정도설(心統性情圖說)」에서 ‘사단’의 구체적 양상을 설명하였고,<sup>25)</sup> 정복심의 내용을 이어 퇴계 이황(退溪 李滉)은 이 내용을 구체화하였다.<sup>26)</sup> 인간의 리(理)인 성(性)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보았는데 이는 기(氣)인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각각 표출된다고 본 것이다. 본연지성의 실현인 사단(四端)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뒤에 일어난 기(氣)가 리(理)를 침범하게 되면 악으로 흐르고, 기질지성의 실현에 해당하는 칠정(七情)은 이치에 맞게 실현하지 못하거나 조절하지 못하여 본연지성을 침해하면 악으로 흐르게 된다. 기질지성의 발현인 칠정은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慾)이다. 기질지성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본연지성을 보존하여 발현하거나,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sup>27)</sup>

『논어』에서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대학』에서는 명명덕(明明德), 즉 타고난 명덕인 본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마음 안에 성(性)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몸을 닦는 방법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노여움, 두려움, 좋아하는 것,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바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다른 데로 쏠려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 언행이 제대로 될 리 없으

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之心，禮之端也，是非之心，知之端也。人之有是四端也猶其有四體也。”

25) ‘성(性)’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이며, 이것이 발현한 ‘정(情)’은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마음이다. 성은 ‘미발지중(未發之中)’을 이루기 위해 잘 보존하여야 하고, 정은 ‘중절지화(中節之和)’를 이루기 위해 잘 조절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李滉, 『聖學十圖』, 「心統性情圖」, “張子曰, ‘心統性情’, 斯言當矣。心統性, 故仁義禮智爲性, 而又有言仁義之心者; 心統情, 故惻隱羞惡辭讓是非爲情, 而又有言惻隱之心, 羞惡辭讓是非之心者。心不統性, 則無以致其未發之中, 而性易鑿; 心不統情, 則無以致其中節之和, 而情易蕩。”

26)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하도(下圖)에서 정복심의 학설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27) 李滉, 『聖學十圖』, 「心統性情圖」, “故氣發而爲情, 亦以理氣之相須或相害處言。如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니, 그래서 ‘몸을 닦는 방법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sup>28)</sup>라 하였다. 이처럼 유학은 오래 전부터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였고 그것이 옳음의 출발점이라 보았다.<sup>29)</sup>

불교 또한 인간은 본래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라 본다. 유학에서 인간에게 사단, 혹은 오성(五性)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이, 불교에서도 인간을 자비, 청정, 지혜를 가진 존재라 본다. 유학과 마찬가지로 인간본성과 자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sup>30)</sup>

『이함경』에서는 “마음이 더러워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여 중생이 깨끗하다. 하얀 바탕에 여러 색으로 그림을 그리듯 마음도 오온에 대한 무지로 생사에 묶이고, 오온에 대한 여실지로 해탈을 얻는다(『잡아함』 권10).”<sup>31)</sup>라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타고난 불성을 자비, 청정, 지혜라 한다. 그런데 누구나 곧바로 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면 곧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인간 존재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

28) 『大學』, 「傳文」 7, “所謂修身, 在正其心者, 心有所忿懣,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此謂脩身, 在正其心.”

29) 고려 고종(1213~1259)시기 이후 고려에 도입된 주자학은 사서(四書)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유학이다. 일연은 이러한 고려 유학의 사상적 교체 시기에 있었던 인물로, 『논어』와 『맹자』의 인간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며, 주자학의 내용을 접했을 가능성도 있다.

30) 불교학자 사이구사 미쯔요시는 동북아로 전래되어 활성화된 대승불교의 이념과 이상을 다음의 10가지로 요약했다. ‘1.새로운 제불과 제보살, 2.공(空)사상, 3.구제의 자비, 이타(利他) 또는 이와 관련된 서원, 4.현세 지향과 피안에 대한 동시 희구, 5.믿음의 강조, 6.삼매의 정화, 7.장대한 우주관, 8.자기 마음의 본성 추구, 9.방편 즉 수단의 중시, 10.일종의 신비화.’가 그것이다(사이구사 미쯔요시, 윤종갑 옮김, 『불교철학입문』, 경서원, 82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심화된 대승불교의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인 『금강경』, 『법화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1)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광복, 2006, 96면.

물질적 형체인 ‘색온(色蘊)’에 인한다. 색온을 포함하여 수, 상, 행, 식(受, 想, 行, 識)이라는 정신적 작용인 사온을 추가한 오온설이 제시된다. 오온은 개체를 존속시키고 존재가 느끼고, 생각하고, 작용하고, 식별하는 정신적 기능이다.<sup>32)</sup> 이는 성리학의 ‘기질지성’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인간을 둘러싼 현상은 늘 변하기에 그 본질은 공(空)하며, 일체는 무상(無相)이 본질이다. 그럼에도 오온으로 인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므로, 고통이 따른다. 고정된 상은 집착과 망념을 불러와 인간은 죄를 반복한다. 그 죄에 따르는 과보에서 비롯된 불행을 멈추고,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일체 현상의 본질이 ‘공’임을 깨닫고 이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교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의 네 가지 집착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은 제도를 받은 중생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아,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sup>33)</sup>

위 내용은 보살이 위 네 가지 상을 끊고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런 공을 없다고 할 수 있다면, 이는 실로 무아와 무상을 체득한 최고의 경지이다. 위의 보살과 같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 일체 현상이 공임을 깨닫는다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을 없애는 끝없는 수행과 정진이 필요하며, 오온에서 비롯된 상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유학과 불교의 인간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과 불교 모두

32) 고익진, 앞의 책, 26~27면.

33) 『金剛般若波羅密經』, 『大乘正宗分』, “如是滅度 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 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인간 본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둘째, 악행의 원인은 인간의 생래적, 감각적 욕구로 인한 것이라 본다. 유학은 칠정, 불교는 오온으로 인한 현실 왜곡이 모든 악행의 시작이라 본다. 셋째, 본성은 회복이 가능하다.<sup>34)</sup> 본성을 ‘선’으로 보존, 발현하는 방법으로, 유학은 악의 근원인 칠정, 즉 욕망을 수신을 통해 조절하여 선한 본성으로 보존, 발현,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불교의 오온개공(五蘊皆空), 탐진치(貪瞋癡)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유사하다.

따라서 끝없는 노력으로 기질지성을 조절하여 이치에 맞게 발현하려 노력하거나, 오온으로 인해 굳어진 상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청정한 본성, 불성을 발현해야 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자신의 감각적인 부분을 잘 조절하고,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이를 잘 제거해 나가는 존재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보편적인 나’의 모습과 ‘개별적인 나’의 모습을 최대한 일치시키려 해야 할 것이라 본다.

## 2) 군자의 감화(感化)와 보살의 제도(濟度)

앞서 서술한 인간 본성을 힘써 보존하고 발현한 이를 유학에서는 군자(君子), 불교에서는 보살(菩薩)로 본다. 성인과 부처는 실제 도달하기 힘든 이상적 목표이기에, 군자와 보살은 이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군자와 보살에 이른 자들은 타인을 감화하고 제도해나간다.

공자는 군자에 대해 인의예지신 등 본성의 구성요소를 골고루 다 갖추고 있으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이룩되는 내면을 가진 인물이라 정의했다.<sup>35)</sup> 그는 세간의 이목에 영합하지 않고 옳은 이치를 잘 살피 덕행에 힘씀으로써 주변을 감화시켜 나간다. 그러나 누구나 이러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성의 정도는 제각기 다르며, 환경에 의해 발현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본성은 꾸준히 보존하고 발현하도록 힘써야 한

34) 정보배, 「판소리계 소설의 군자·보살형 인물을 통한 조선 후기 소설 독자의 가치관 고찰」, 『동양정치사상사』 18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153면.

35) 『論語』, 「衛靈公」 17,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다. 이것이 군자와 일반인의 차이이다. 맹자 또한 군자는 인의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였다.<sup>36)</sup> “군자의 본성은 비록 크게 도가 행해지더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비록 곤궁하게 살더라도 더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sup>37)</sup>라 한다. 군자다운 이가 군주가 되거나, 군주가 인의의 보존과 발현에 힘쓰면 나라는 자연스레 태평해진다.

이는 매우 드물고 귀하지만, 이러한 군자만이 많은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필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본성을 발현하는 군자가 때때로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 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먼저 그 심지(心志)를 괴롭게 하고, 그 살과 뼈를 고달프게 하며 …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뒤틀리게 하는데, 이는 … 그의 부족한 능력을 키워주려는 것이다.”<sup>38)</sup> 군자와 같은 드문 이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이목이 그를 집중하며, 그를 시험해보고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자는 “곤궁한 상황에서는 홀로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며, 출세하게 되면 천하 사람들을 두루 선하게 한다.”<sup>39)</sup> 『대학』에서도 “대인의 학문 방도는 자신의 밝은 덕을 밝게 하는 데 있고, 백성을 교화하여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이 두 가지가 항상 최고선의 경지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데 있다.”<sup>40)</sup>고 하여, 군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존재임을 말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보리살타 또는 줄여서 보살이라 한다.<sup>41)</sup> 보살은 대승불교권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표현된다.<sup>42)</sup> 소승불교

36) 『孟子』, 「離婁」 下 19, “舜明於庶物, 察於人倫, 由仁義行. 非行仁義也.”

37) 『孟子』, 「盡心」 上 21, “廣土衆民, 君子欲之, 所樂, 不存焉. … 君子所性, 雖大行, 不加焉, 雖窮居, 不損焉, 分定故也. 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

38) 『孟子』, 「告子」 下 15,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39) 『孟子』, 「盡心」 下 33, “君子, 行法, 以俟命而已矣.”

40) 『大學』, 「經文」 1,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41) 보리는 깨달음을, 살타는 중생을 뜻하는데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또는 깨달음 속에 있는 중생이란 말이다. 고익진, 위의 책, 90면

42) 보살은 산스크리트어의 보디사트바(bodhisattva)를 음사한 것이며, 최초 사용

는 개인의 깨달음과 성불을 목표로 하지만 대승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목표로 하여 깨달음의 정진과 중생 구제를 병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3)</sup>

『법화경』에서 부처는 제자들에게 다음 생애의 일들과 임무, 장엄할 세계 등을 일일이 수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살이 가야할 길을 엿볼 수 있다. 부처는 그들이 내세에 법왕자로 태어나 불국토<sup>44)</sup>를 세우고 불법을 수호하고 퍼뜨려 중생을 구제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세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한 불국토를 내세에서는 이루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

부처 역시 자신이 깨달은 바가 너무 심오하여 세상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개인적으로 열반에 들까 고민했던 인물이다.<sup>45)</sup> 그러나 마음을 달리 먹고 중생을 교화하기로 결심한다. 계속 윤회하여 괴로움을 반복해야 하는 중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평생을 다해 무상(無相)과 무주(無住)를 설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보살과 군자는 모두 개인의 덕행으로써 세상을 감화해 나가는 이상적 인물형이다. 외부의 어떠한 이익이나 명예를 취하려는 마음 없이 ‘그 자체가 인간 존재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이므로’ 그렇게 행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본성을 보존하여 발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을 감화해야 하며

---

된 문헌과 연대 추정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승불교 초기에 여러 불보살들이 등장하면서 보살사상이 발전하였고, 이들은 특히 ‘부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보살 그대로 중생 제도에 전념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사이구사 미쯔요시, 앞의 책, 172~177면). 즉, 한국을 포함한 대승불교권에서 중심이 된 인간상인 것이다.

43) 고익진, 위의 책, 79면.

44) 불국토 건설은 불토정화라고도 말해 지는데, 사회를 정화하여 정법이 행해지는 이상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고익진, 위의 책, 90면.

45) 『法華經』, 「方便品」, 49, “我卽自思惟 若但讚佛乘 衆生沒在苦 不能信是法 破法不信故 墜於三惡道 我寧不說法 疾入於涅槃 尋念過去佛 所行方便力 我今所得道 亦應說三乘.”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일불승만 찬탄하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저 중생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어서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닭에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차라리 설법을 그만두고 빨리 열반에 들어버릴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글 해석은 무비, 『법화경 법문』, 담앤북스, 164~165면 참고.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를 지닌다. 사회적 존재이자, 실천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는 인간 존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 3) 교민(敎民)을 통한 이상향의 완성

유학과 불교 모두 완성된 개개인이 모여야 이상적 세계가 된다고 본다. 이의 구체적, 실천적 방법을 유학은 ‘교화’ 혹은 ‘감화’, 불교는 ‘제도’라 칭한다. 유·불 공히 인간을 가장 중요한 존재라 보는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유학에서 제시한 구체적 이상사회는 공자의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시작한다. 이 사회의 사람들은 내 가족만을 위하지 않기에, 모든 어린이는 잘 자라고 모든 늙은이는 편안히 일생을 마친다. 과부, 홀아비, 병든 자는 불쌍히 여겨서 함께 봉양한다. 간소한 피를 부리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다. 도적이 없어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 것이다.<sup>46)</sup> 『맹자』에서도 이러한 사회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sup>47)</sup>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맹자는 ‘왕도정치론’으로서 구체화하였다. 본성이 뛰어난 군자는 지도자가 되어 백성에 대한 측은지심을 확충하고, 패도(霸道)를 적극적으로 축출하며, 이후 백성들의 항산(恒産)을 보장해 주어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교민(敎民)을 통해 백성들을 항심을 가진 이상적 개인으로 길러내면 왕도정치가 완성된다.<sup>48)</sup>

이를 위해 왕도정치의 필수적인 전 단계로서 ‘항산을 통한 항심의 보장’을

46) 『禮記』, 「禮運」,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脩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47) 『孟子』, 「公孫丑」 上 1, “行仁政而王, 莫之能禦也.”; 「盡心」 上 22, “五十非帛不煖, 七十非肉不飽, 不煖不飽, 謂之凍餒, 文王之民, 無凍餒之老者, 此之謂也.”; 「梁惠王」 上 7, “明君制民之產,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梁惠王」 上 3,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48) 정보배, 「완관 판소리계 소설에 형상화 된 왕도정치의 이상과 민중의 염원」, 『한민족어문학』 제8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9. 126~133면.

역설하였다.<sup>49)</sup>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있으나, 이의 발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의 향산을 보장해주는 것은 개개인의 사단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주기 위한 것이다. 맹자는 “항심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죄에 빠지게 해 놓고 그들을 처벌한다면, 이는 백성에게 그물질을 하는 것입니다.”<sup>50)</sup>라 하였다.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을 잘 보살피지 못한 군주에게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 중국의 고대 국가에서는 학교를 세워 백성을 가르쳐 인륜도덕을 밝히는 일을 해 왔다는 예를 든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도리를 알게 되어 단결하게 된다는 것이다.<sup>51)</sup> 이러한 선교(善教)로서 군주는 진정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된다. 「진심」 상 편에서 “선정(善政)은 선교로 민심을 획득하는 것보다 못하다. 선정은 통치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선교는 통치자를 아끼도록 만든다. … 선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이다.”<sup>52)</sup>라 하였다.

맹자는 요순시대를 이상향으로 그리며,<sup>53)</sup>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왕도정치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맹자가 바라는 세상은 공자와 마찬가지로 오류가 실현된 공명정대한 세상이다. 이를 위해 군주는 항상 본성을 꾸준히 닦아 내어야 한다. 군주도 백성도 모두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며 존중받는 이상적 세상이 도래한다고 보았다.

한편, 불교의 이상향은 미륵세계, 혹은 미타세계라고 표현되기도 하였지

49) 향산(恒産)은 일정한 생업을 뜻하며, 항심(恒心)은 어떠한 상황에서건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다. 『맹자』의 「양혜왕」 상편과 「등문공」 상 편에서 언급되었다.

50) 『孟子』, 「滕文公」 上 3,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己, 及陷乎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51) 『孟子』, 「滕文公」 上 3, “設爲庠序學校, 以教之, 庠者養也, 校者教也, 序者射也,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52) 『孟子』, 「盡心」 上 14, “善政不如善教之得民也. 善政民畏之, 善教民愛之, 善政得民財, 善教得民心.”

53) 『孟子』, 「滕文公」 上 4, “后稷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熟而民人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放勳曰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 聖人之憂民, 如此而暇耕乎.”

만, 실제로 석가모니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으로서 근기가 적은 중생들을 위해 이상향을 언급한 것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변하므로,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특정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살라고 늘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가 깨달은 자가 되면 이상적 세계인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처가 꿈꾸는 이상세계의 모습은 『법화경』에서 여러 제자들이 만들어갈 불국토의 묘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가섭불의 수기에는 “그 나라의 경계는 장엄하게 꾸며져 있으며 … 땅이 반듯하여 높은 데, 낮은 데, 구렁, 둔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으며, 황금 줄을 길 경계에 늘이고 보배 꽃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청정하리라.”<sup>54)</sup>라 표현되어 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한 불국토의 모습이 이와 같이 찬란할 것이라 이해함이 옳다.

또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마땅히 존재해야 할 세계를 묘사하기도 하는데, 중생의 업에 의한 세계의 탄생을 보여주는 『장아함경』의 내용을 통해 이를 상상해볼 수 있다. ‘구사론’에서는 중생들의 업력이 세계를 탄생시키는 과정과, 각 세계의 중생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모든 중생의 업력에 의해 허공에 바람이 일어 풍류이 생기고, 그 위에 수류, 금류, 수미산, 이를 중심으로 한 일곱산, 외곽에 칠위산, 그 위에 여덟 바다가 생성된다. 최초의 세계가 완성되는 데 1소겁의 시간(1,590만 8년)이 걸린다. 그 다음 중생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뉘어 생한다. 욕계는 욕심이 있는 경계로 그로 인해 받는 고통 정도에 따라 지옥, 축생, 아귀, 수라, 인간, 천신의 육취가 식별되고, 특히 천신은 육천으로 세별된다고 한다.<sup>55)</sup>

『장아함』 6경의 진륜성왕수행경에서도 또한 비슷한 묘사가 있다. 왕이 세계를 잘 다스릴 때는 인간 수명이 8만세였으나, 마지막 왕으로 인해 전쟁과 탐욕이 생기고 인간은 점차 잘못을 저질러 수명이 반씩 줄어 10세까지 된다. 첫 번째로 생겨난 세계의 인간은 “형색이 아름답고 빛을 내며 하늘을 날 수

54) 무비, 앞의 책, 296면.

55) 고익진, 위의 책, 142~144면.

도 있고 수명이 장구한” 존재이나, 맛과 욕심에 탐착하여 수명도 짧아지고 점차 불행해졌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탐착하지 않는 인간이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존재들이 모인 세계가 이상세계임을 알 수 있다.<sup>56)</sup>

인간의 업력으로 세계의 탄생과 소멸이 좌우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결국 이상적 세계의 탄생 또한 각 인간에 내재한 도덕성의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을 욕심이 좌우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인간에 내재한 도덕성과 세계의 운명 간 밀접한 관계를 한 번 더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인간 전체의 잘못을 전 인간이 동시에 하나씩 없애 나가야만, 수명도 인간 전체에 걸쳐 두 배씩 불어난다는 것이다. 한 명의 영웅적 존재보다, 다 같이 성장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인간과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학과 불교의 이상적 세계관은 이상적 인간의 완성을 통해 세계의 완성을 이룩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이는 인간이 본래 우주의 원리나 법칙을 실현할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상세계라는 것은 실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현존하는 사람으로 인해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단군신화」에 나타난 이상적 인물형과 세계

#### 1) 환웅의 감화(感化)와 웅녀의 발보리심(發菩提心)

단군신화의 첫 머리는 다음과 같다.

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

56) 학담 평석, 『한 권으로 읽는 아함경』, 한길사, 2015, 543~562면.

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이 부분은 환웅과 환인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환웅은 ‘수의천하 탐구인세(數意天下 貪求人世)’라 하여 인간 세상을 꿈꾸었다. 이에 환인이 ‘하시삼위태백 가이홍익인간(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즉 삼위태백이 홍익인간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웅이 왜 ‘탐구인세’ 하였는지 또한 드러난다. 환웅은 인세를 내려다보며, 하늘나라의 완전한 행복을 더 널리 실현시키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개인의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고 행복을 널리 함께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이롭게 함이 진정한 행복이라 여기는 환웅의 본성 발현이다. 이는 군자이자 지도자로서 무질서한 인간세에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동시에 모든 중생이 무상(無相), 무주(無住)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불성을 일깨우고자 서원을 세운 보살의 마음이다.

환인은 환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 환웅은 좋은 마음을 발심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먼저 읽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실현할 땅을 살피며, 천부인과 삼천의 무리를 주는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한다. 이는 환웅의 뜻이 송고하며 우주의 이치에 부합함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인세에 내려온 환웅은 풍백, 운사, 우사로 하여금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개의 일들을 주관하게 하여 ‘재세이화(在世理化)’하게 한다. 곡식은 식생활이며, 생명과 질병은 생과사를 주관함을 뜻한다. 형벌은 예(禮), 즉 법칙과 질서유지이다. 선악은 무엇일까? 악으로 인해 벌어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형벌의 일이다. 이러한 형벌이 있기 전에 선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므로, ‘선악’이란 백성의 교화라 볼 수 있다. 개인의 욕심 충족이 아닌 자신과 공동체에 이로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善)이라 가르치는 것은 군자의 교화이자 보살의 제도이다. ‘재세이화’란 세상에 함께하면서 다스려 교화한다는 뜻으로 백성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며 힘써 교민, 제도하는 군자행, 보살행의 다른 표현이다.

이는 환웅이 품었던 ‘홍익인간’의 뜻이 신시(神市)에서 나라를 개국하여 ‘재세이화’로 발현된 것이다.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염원이 사회적 이상으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관계이다. 이는 군자가 홀로 있을 때 본성을 보존하고, 공동체에 이를 발현하여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보살이 수행을 통해 상을 없애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상통한다. 무질서한 세상과 혼란 속 백성들은, 환웅의 교화 혹은 제도로 자신의 본성과 사람답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환웅은 환인과 함께 하늘과 있을 때는 ‘성인’이었다.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상태이며 신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인극(人極)’인 것이다. 그러나 누리던 행복을 버리고 널리 이로운 존재가 되고자 결심했다. 이는 희생이지만,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이므로 환웅에게는 행복이다. 이는 개인적 깨달음을 통한 이로움을 미루고, 힘겨운 중생교화를 택한 군자와 보살의 운명과 같다.<sup>57)</sup>

실제로 「단군신화」는 유이민이 토착민을 정벌한 이야기의 은유라는 설이 오래전부터 굳어져 왔다.<sup>58)</sup> 승자인 환웅 세력이 무력 정복 후 자신의 정복을 ‘재세이화(在世理化)’라 한다면, 피정복민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신화를 통해 반만년 전 역사를 재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면에 표현된 것을 충실히 해석하여 주제의식과 의미를 살필 때, 환웅은 숭고한 지도자로서 무지한 백성을 교화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호랑이와 곰은 신웅에게 항상 사람이 될 수 있게 빌었다(常祈于神雄願化爲人). 환웅의 감화가 동물에게까지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불교의 보살은 세상 모든 것을 제도하고자<sup>59)</sup> 서원을 세운다. 환웅은 결국

57) 석가모니 또한 개인적 열반과 중생 구제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내용과도 유사하다. 본문 각주 39) 참조.

58) 김정배, 「고조선의 민족구성과 그 문화적 복합」, 『백산학보』 12호, 백산학회, 1972, 3~52면.

59) 『金剛般若波羅密經』, 第三「大乘正宗分」“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

그들을 모른 채하지 않는다. 환옹의 주변부까지 그의 통치 아래 있고자 함은 간접적 교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소원이 간절하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근기(根機)에 맞는 적극적 교화, 제도이다. 동물 또한 차별 없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제도하였으므로, ‘너는 나와, 우리와 다르다’는 차별의식인 상(相)을 초월한 마음이다. 곰과 호랑이는 환옹의 교화로써 숭고한 인생을 살고자 ‘발보리심(發菩提心)’하게 된다. 불교에서 이와 같은 발심은 범부에서 선남자선여인으로 가는 단계, 즉 불교의 가르침에 마음을 내어 깨달음에 이르하고자 결심한 단계와 유사하다.<sup>60)</sup>

이처럼 호랑이와 곰의 기원은 불교적 관점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유교적 관점으로 아직 교화되지 않은 사람, 환옹의 이화(理化)를 입지 못했거나, 범밖에 있던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왕도정치를 갈망하는 백성들이었다.

정리하면, 환옹은 삼위태백의 사람들에게 ‘재세이화’로서 새로운 마음을 심어 주었다. 이는 환옹이 인세를 향해 ‘홍익인간’하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을 품고, 이를 천제 환인이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도와주었기에 실현될 수 있었다. 이는 군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본성을 잘 보존하고 발현한 것과 같다.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이치로서 선한 것이며 이를 최대한으로 발현하면 하늘이 자동적으로 돕게 된다. 이는 성인이든 하늘의 도와 합치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군자는 수양하므로 그 하는 일이 길하여 뜻대로 된다고 한 것과 통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환옹은 자신의 불성을 깨닫지 못하여 오온에 사로잡힌 존재들을 제도하여 깨닫게 하고자 서원을 세운 보살과 같다.<sup>61)</sup> 보살로서 환

其心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 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 得滅度者.”

60) 『金剛般若波羅密經』, 第二「善現起請分」, 수보리는 석가 세존에게 “希有世尊 如來 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 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이라 묻는다. 즉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선남자선여인’이며, 무상의 진실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이라 한다. 이를 줄여 ‘발보리심’ 혹은 ‘발심’이라고도 한다.

61) 불교 수행은 일반적으로 서원-실천(방편)-성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김병권, 「

웅은 중생을 적극적으로 제도하였으며 스스로 불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선악을 가르쳤다. 이에 동물까지도 감화되어 밭보리심하게 된 것이다. 호랑이와 곰의 경우를 통해 보살의 광대한 서원의 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sup>62)</sup>

## 2) 수신(修身)을 통한 웅녀의 득성어인(得成於忍)

환웅이 재세이화하며 홍익인간을 실현해 나가자, 호랑이와 곰이 아래와 같이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媼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같은 동굴에 사는 곰과 호랑이가 원화위인(願化爲人)을 빌었고, 이에 환웅이 금기를 알려 주어 이를 지킨 곰만이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주목할 내용은 사람이 되려면 금기와 같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련이 있다는 것, 이 금기는 이후 곰과 호랑이의 운명을 갈라지게 했다는 사실이다.

‘금기’란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함’의 의미인데, 민속학적으로는 ‘어떤 사회에서 부정(不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집착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금하는 풍습’이라 할 수 있다. ‘성(聖)’과 ‘속(俗)’의 관점에서는 속이 곧 부정으로 간주되고, 금기의 대상이 된다.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

---

신라 노래 <풍요>의 불교적 담론 읽기], 『퇴계학논총』 제31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175면). 환웅과 뒤이어 등장하는 웅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 수행의 과정과 일치하며, 보살형 인물이라 볼 수 있다.

- 62) 환웅의 서사를 본절에서 유·불의 공통적 내용으로 해석할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유학으로의 해석이 좀 더 부합함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환인이 환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자의 본성이 천도에 부합한다.’는 유학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깊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고의 해석 상 환웅의 서사 부분은 유학과의 관련성이 더 깊은 것으로 보인다.

만 먹으라는 것은, 육식 동물로서 낮에 활동하며 육식을 먹는 생활과 대척점에 있다. 육구에 반하는 생활을 통해 수성(獸性) 혹은 수욕(獸慾)을 제거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삼위태백 사람들은 본래부터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의 사람들이라며 천제로부터 교화 될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곰과 호랑이는 특별한 금기를 통해 그들과 다른 존재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람 또한 수성(獸性)이 아예 없지 않다. 맹자 또한 사람의 성품 중에 욕망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라 간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을 뿐이다.<sup>63)</sup> 이황 역시 인간의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했다. 맹자가 말했던 인간의 고유하고 고귀한 특성이 ‘본연지성’, 생존과 관련된 욕망을 ‘기질지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고귀한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을 보존해야 하지만, 육신에 기대어 살아가려면 본능적 욕망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리(理)에 맞게 발현해야 인간으로서 선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지성이 다르고, 이를 이치에 맞게 완벽하게 발현하는 이는 드물기에 끊임없이 수양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의 관점으로 곰과 호랑이는 감화의 초기 단계이다. 인간사회에 어울려 살아가려면 기질지성인 수성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들은 삼위태백 사람들과도 다르기에, 더 특별한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아진다.<sup>64)</sup>

불교의 『금강경』에서는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아 온 사람들은 경의 한 구절을 통해 신심을 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부처가 되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는 마음을 내었다고 해서 아무나 보살행을 수행할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경을 만나는 것 또한 보통

63) 『孟子』, 「盡心」 下, 24,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之於安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

64) 『법화경』, 「방편품」의 내용에 따르면, 여러 중생은 갖가지 욕망에 깊이 집착함을 알고 그 성품을 따라 갖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과 방편으로써 법을 설한다고 하였으며, 현재의 성품과 전세의 착하고 나쁜 업까지도 다 알고 제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무비, 위의 책, 124면, 133면).

인연이 아닌 사람으로서 과거세부터 경을 만나기 직전까지 계율을 지키며 선근(善根)을 무수히 닦은 사람이라 본다.<sup>65)</sup> 곱과 호랑이는 그러한 측면에서 신심을 생활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라 보기 힘들다.

보살은 육바라밀로서 자신의 불성을 살피 어긋남 없이 유지해야 한다. 육바라밀은 선남자선여인으로서 보살행을 수행하며 지켜야 할 계율인 것이다. 그런데 곱과 호랑이는 이보다 더 혹독한 금기를 수행해야 한다.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그들의 혹독한 금기는,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죄과를 치르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본다. 이는 또한 육바라밀 수행을 위한 진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호랑이는 실패하지만 곱은 성공하여 인간의 몸을 얻는다. 만일 곱이 그러한 기질을 억눌러 인간의 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억누른 것은 언젠가는 폭발한다. 따라서 수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호랑이는 억눌러 실패한 것이고, 곱은 수성을 없애어 성공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득성어인(得成於忍)’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참음으로서 얻어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는 제28분 「불수불탐분(不受不貪分)」에 등장한다.

수보리야! 보살이 향하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했다라도,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일체 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참다운 진리를 이루어 얻었다면,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리라.<sup>66)</sup>  
일체법이 내가 없음을 알아 ‘참다운 진리’를 이루어 얻는 것이다. 참다운

65) 『金剛般若波羅密經』, 第六八 「正信希有分」, “如來滅後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爲實 當知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 而種善根 已於無量千萬佛所 種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 生淨信者。” ‘有持戒修福者’ 관련 본고의 해석은 삼불회(불교 및 전통문화 연구 모임)에서 부산대 김병권 교수님의 강의 내용(2018. 8. 10.)을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66) 『金剛般若波羅密經』, 第二十八 「不受不貪分」, “須菩提 若菩薩 以滿恒河沙等世界七寶 持用布施 若復有人 知一切法無我 得成於忍 此菩薩 勝前菩薩 所得功德 何以故 須菩提 以諸菩薩 不受福德故 須菩提 白佛言 世尊 云何菩薩 不受福德 須菩提 菩薩 所作福德 不應貪着 是故 說不受福德。”

진리는 ‘인(忍)’에 대응되며, 이것이 ‘지일체법무아’이다. ‘참음’이란 ‘없음을 아는 것’이다. 이의 반대는 ‘있음을 아는 것, 혹은 있음을 끊임없이 탐착하는 것’이며 이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꿈이 ‘꿈을 토대로 하는 부족’을 뜻하며 이는 선진 문명을 가진 부족에 정복되어 문명화되는 과정의 은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꿈은 분명 인내했고, 인내는 새로운 존재로 그녀를 거듭나게 했다. 이것이 웅녀의 서사에서 전달하는 중심 내용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꿈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하나의 은유로 본다면, 이의 원관념은 ‘꿈 부족과 이주민의 결합’이 아니라 ‘아(我)에서 무아(無我)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꿈 또한 참음으로써 이룸을 얻었다. ‘기삼칠일(忌三七日) 능득여신(能得女身)’의 ‘기(忌)’는 ‘인(忍)’으로, ‘득여신(得女身)’은 ‘득성(得成)’에 대응된다. 참음으로써 다른 존재로 거듭났고 우리 민족의 국모가 되었다. 인간 또한 삶에서 필연적으로 본래의 습성을 제거해나가는 ‘인(忍)’의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유학에서의 수신, 혹은 칠정을 조절하는 과정과 같다. 이는 결국 ‘있다’는 생각에서 ‘없다’로 가는 것, 즉 오온을 통한 상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인 곰도 해냈다는 이야기<sup>67)</sup>를 통해 인간도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자와 보살, 더 나아가 부처와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다.<sup>68)</sup> 웅녀는 이중의 단계를 뛰어넘은 존재로 볼 수 있는데 짐승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보살에 가까운 이상적 인간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격으로 형상화될 만하다.<sup>69)</sup>

67) 『법화경』, 「제바달다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용궁의 8세 용녀가 성불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축생에,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용녀의 깨달음을 믿지 못하자 용녀가 등장하여 여러 이적을 선보이고,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대중들이 믿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무비, 위의 책, 457~467면).

68) 불교에서는 복덕과 공덕을 구분한다. 복덕을 닦아 얻은 세속적 복은 헛되지만, 공덕을 닦음은 일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불생불멸하는 참 존재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영혼의 성장 혹은 정화이다(김병권, 앞의 논문, 166~167면). 웅녀 또한 위의 과정을 통해 공덕을 성취한 보살이 된다.

69) 웅녀의 서사를 본 절에서 유불사상으로 해석할 때 불교적 관점으로 더 깊이 있게 해석됨을 발견할 수 있다. 곰과 호랑이의 금기에 대한 인과응보적 해석이나,

### 3) 왕도 실현의 기반이 된 환웅·웅녀·단군

웅녀가 인간이 된 후 아이 갖기를 빌게 되는데, 이러한 웅녀의 기원은 그녀를 또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며,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계기가 된다.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  
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 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忽  
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여인이 된 웅녀는 아이 배기를 빌었으나 아무도 혼인해주지 않았다. 아이 배기를 빌었다는 것은 그녀가 외로운 처지였음을 뜻한다. 웅녀는 출신 배경으로 인해 혹은, 금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 마땅히 혼인할 이가 없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뒤의 ‘환웅과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웅내가가 위혼지, 잉생자(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즉 환웅이 임시로, 혹은 거짓으로 인간으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다. 그녀가 수성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았다면, 기원이 안타깝거나 이루어져야 할 소원으로 비추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환웅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준 것은, 환인이 환웅의 고귀한 뜻을 적극 실현하도록 지원한 것과 같다. 웅녀의 기원이 천도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 맥락이 지닌 일관성으로 볼 때 웅녀의 기원이 우주의 이치에 알맞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즉, 웅녀의 자질과 기원(祈願)은 환웅의 흥익인간, 즉 왕도정치에 걸맞은 일이다.

환웅이 웅녀의 마음을 알고 이를 이루어준 것은 왕도정치를 이룩하려는 군주로서 측은지심을 확충하고 이를 웅녀에게 베풀어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족이 없는 그녀의 처지를 측은하게 여

---

참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부분의 해석이 특히 그러하다. 환웅의 서사와는 달리 웅녀의 서사에는 불교적 관점이 좀 더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긴 지도자로서의 환웅의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체 이야기 속에서 환웅과 웅녀는 군자와 보살의 화신으로서 왕도 실현을 증명하였고, 후계자인 단군을 낳아 왕도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환웅은 보장된 안락한 삶을 버리고 힘겹더라도 홍익인간을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로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또한 웅녀는 군자, 보살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환웅과 함께 단군을 낳아 국모로서 왕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한 존재가 된다.

이후 단군의 이야기는 왕이 된 시기, 도움을 정한 곳, 도움을 옮긴 시기와 장소 등 사실 중심의 서술이다. 단군의 행위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일화가 나열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선조인 환인, 환웅, 웅녀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서 단군은 자연스럽게 타고난 훌륭한 간직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준다.

단군이 1908년까지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단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도자가 조선을 통치한 기간이라 보는 해석이 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1908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선이 표방한 정신은 환웅, 웅녀, 단군이 실현하고자 한 ‘홍익인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겨진 역사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위의 이야기를 통해 ‘단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는 신화 속 선조들의 정신을 생각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통치했던 1908년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4. 문학 교육적 의의

### 1) 인성교육 측면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함양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바로 핵심 역량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의 설정은 지금 또한 논란이 많다. 이것이 오랜 기간 한국 교육계 안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탄생한 것이 아니라, OECD 보고서를 통해서 급하게 들여온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 역량을

국어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다분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상, 교육과정에 포함된 논의들을 통해 현장의 교육주체들이 자신의 교육과 연구 행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sup>70)</sup>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핵심 역량은 크게 여섯 가지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성찰·계발 역량’이 그것이다. 국어과를 다른 교과 지식 습득에 기본이 되는 도구 교과라 본다면,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식의 구조화를 통한 사고력 향상을 이끄는 교과라 본다면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에 속한 문학 과목 역시 여섯 개의 역량에 두루 관련되겠으나,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성찰·계발 역량’에 특히 큰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문학은 인간의 지식 정보 습득 능력이나 지적 능력 향상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 능력이나 공감 능력에 호소하는 측면 또한 겸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문학인가’라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에 인간에게 더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바둑에서의 알파고를 비롯하여, 이미 기술로서는 성역이라 생각하여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도전하고 정복한 사례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를 기대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인간의 현실이며, ‘과연 인간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서영진은 2015 개정 국어 교과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

70) 정혜승, 『국어 교사가 없는 국어 교실』에 대한 토론문,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국어 교과 역량 탐색(제68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2019, 48면(학회 시 구두 진행).

한 국어 교과 역량 개념 틀을 새롭게 제안하였는데, ‘다중 문식성’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사회 역량, 창의적 인지 역량, 인성 기반 정서 역량’의 세 역량을 제안하였다.<sup>71)</sup> 이는 한마디로 사고력 함양과 개인 및 사회적 심성의 함양이 주요 내용이다. 결국 새롭게 재편한 국어교과의 역량들 역시 인성 관련 요소가 중심인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새로운 시대에 있어 인공 지능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최대 무기는 ‘기계가 따라갈 수 없는 예측불허의 창의성’과 ‘인간과 인간을 잇는 따뜻한 마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군신화」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치를 깊게 표방하는 이야기이다. 이는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라는 대표적 주제어 습득이나, 토템적 은유로 읽어서는 도출하기 힘들다. 문학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유학과 불교를 기반으로, 「단군신화」를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문학 작품으로서 깊이 읽기를 시도했다. 『삼국유사』가 탄생했던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고, 더불어 편찬자인 일연의 배경에 대해 이해한다면 학습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단군신화」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2) 고전문학교육 측면 : 한국 전통 철학에 기반한 인물형의 이해

문학은 인간이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현실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는 우화 혹은 판타지 문학도 존재하지만, 이들 또한 결국 현실의 인간과 그 삶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인간은 욕망이나 의지를 가지고, 그를 둘러싼 사회나 환경에 대응하여 욕망이나 의지를 실현해 나간다. 독자는 이에 환호하기도, 좌절하기도 하면서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인간 존재를 깊이 성찰하게 된다. 학습자 또한 문학교육의 장에서 인간과 사회를 폭넓게 성찰할 기회를 얻는다. 이는 간접 경험의 확충이며,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71) 서영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교과 역량 설정 방향」,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국어 교과 역량 탐색(제68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2019, 32~35면.

언게 한다. 이는 문학 교육의 중대한 필요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학 교육과정은 과연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상의 이해’의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제공하려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인물의 이해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초5~6학년, 중1~3학년, 고교 1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문학의 성취기준에는 인물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성취기준이 없다. 단, 5~6학년 성취기준에서 ‘[6국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한다.’와 중학교 1~3학년의 [9국05-05], [9국05-06]은 이를 심화한 성격을 가진 성취기준으로 보인다.<sup>72)</sup> 고교 1학년 과정과 선택중심 문학의 경우 ‘인간과 세계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강조하는 성취기준<sup>73)</sup>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등장인물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를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물’에 대한 명시는 초등 교육과정 뿐인데, 이는 단순히 ‘문학에 인물이 하나의 주축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차원일 수 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도 중·고등학교에서 이를 심화할 성취기준이 필요한데, 중단으로 성찰해 볼 때 작품 속에서 ‘인물’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급하게 ‘세계’로 통합되어 버린 형국인 것이다. 만일 이와 같다면 ‘인물’ 또한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일 뿐이고, 학습자는 지식적 차원에서 ‘작품 속 인물’이 어떤 사회의 어떤 유형의 인물

72) ‘[9국05-05]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9국05-06]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한다.’ 이다.

73)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가 그것이다.

을 대표하는지 알아내는 차원에서 피상적인 인물 이해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인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생적 이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성격 변화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시대와 사회에 따라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누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참고서에도 다수 실려 있으나, 이는 외국 이론이다. 이렇게 인물을 나누면 고소설이나 문학 작품 속 인물은 평면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 대다수가 된다. 이때 학습자들은 우리 고전 문학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인상을 갖기 쉬운 것이다.

앞서 환웅과 웅녀를 군자형, 보살형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동기와 행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주제 또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군자형, 보살형 인물의 특성은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발현하느냐의 개인 의지와 노력에 따라 꿈과 욕망의 실현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고전 문학 속 인물을 볼 때 한결 다채롭게 인물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단군신화」에서 이러한 이상적 인물형을 살펴보았다면, 이후 다른 고소설 작품을 통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인물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전작품의 대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유학과 불교의 사상적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성의 보존과 발현형으로 볼 때 대다수의 바람직한 인물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sup>74)</sup> 지나치게 착하거나 훌륭하기에 서양의 욕망 이론이나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거리감이 들지만, 우리 문화 고유의 사상적 배경에서 탄생한 인물론으로 접근할 때 한결 이해가 자연스러워진다. 반면 본성의 회복형으로 볼 때 악행을 저지르다가도 개과천선한 인물들, 혹은 욕정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바람직한 인물로 인해 감화가 된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sup>75)</sup> 회복형으로의 분류를 통해 단순히 선과 악

74) 춘향, 심청, 흥부나 고소설의 바람직한 인물인 <사씨남정기>의 사씨, <창선감의록>의 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75) <홍부전>의 놀부, <춘향전>의 이몽룡, 완판 <퇴별가>의 토끼, <창선감의록>의 화춘과 심씨, <사씨남정기>의 유연수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영웅소설의 경우 여러 주인공들이 초반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다가 차츰 영웅과 같은 면모를 갖추다. 조웅과 소대성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의 대립을 넘어선 관점으로 폭넓게 인간과 사회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sup>76)</sup> 반면, 본성 회복에 실패한 인물로서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끝내 깨닫지 못하였거나 벌을 받아 죄과를 치르게 된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sup>77)</sup> 이와 같이 본성의 발현·회복·실패에 따라 인물은 다채롭게 해석되며, 이와 같은 인물 해석을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 또한 더욱 심도 있게 도출할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사상을 통해 도출한 인물 유형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인물의 이해를 「단군신화」의 두 인물을 통해 시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군신화」가 가지는 문학교육적 의의가 있다.

본성의 발현형·회복형·실패형으로 인물을 분류할 때 단군신화의 환웅, 웅녀, 호랑이가 각각 이에 대응된다. 이는 본성의 발현 정도를 통해 분류한 인물형이 우리 문학에서 가장 최초로 나타난 예가 될 수 있다. 즉, 우리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유·불의 인간관에 기반한 인물형 등장의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단군신화」가 가지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적 의의 또한 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껏 「단군신화」를 토론편적 해석이나, 이주민 선주민의 관계에서 유추하던 것이 대다수였다. 이는 학자들의 견해 혹은 추정일 뿐, 신화가 역사의 기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견해가 부정할 수 없는 정설이라면 「단군신화」는 한국사 교과로만 편입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단군신화」 교육은 오히려 신화를 신화답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단군신화」이 본래 가지고자 한 의의를 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배태한 「단군신화」가 우리 민족의 부정할 수 없는 고귀한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면, 국어과에서도 이의 정신을 더욱 되살리기 위해 문학교육답게 가르쳐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의 모색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76) 이는 또한 최근 우리사회가 교육계에 요구하는 인성교육의 의무를 문학교육을 통해 이행할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정보배, 「인성교육을 위한 고소설 교육 내용 연구」, 『교사교육연구』56권 3호, 부산대 과학교육연구소, 2017, 292~308면.

77) <춘향전>의 변학도, <심청전>의 뽕덕어미, <사씨남정기>의 교씨, <퇴별가>의 판본 중 죽음에 이르게 된 용왕이나 별주부, 혹은 토끼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4. 맺음말

유·불사상은 우리 역사 속 정치, 문화, 예술, 문학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발전해 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단군신화」 또한 이와 깊은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편찬자인 일연이 이를 수록하면서 유·불의 인간관을 형상화한 것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군신화」가 오랜 기간 전승되면서 이 땅에서 토착화 되어가던 유·불사상과 만나 그러한 성격을 띤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둘 다의 가능성도 있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유·불사상과 「단군신화」, 더 나아가 『삼국유사』가 고려 후기라는 시대적 사상적 배경으로서, 편찬자의 사상적 특성으로서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단군신화」가 함의하는 의미가 유·불사상의 핵심 내용을 관통하는 심오하고 넓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단군신화」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정 종교의 숭배 대상이라는 점에서 배척되기도 하였고,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단군상이 철거되기도 하는 비운을 맞았다. 일연이 편찬했다는 이유로 불교에 편향된 이야기라 치부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단군신화」는 차츰 교과서에서도 사라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희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단군신화」에 담긴 홍익인간 사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이념<sup>78)</sup>이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신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라서, 「단군신화」라서 교육이념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 여러 맥락을 떠나 그 고귀한 의미가 과거를 울리고 현재를 울리며, 미래에도 메아리칠 수 있는 항존적 인본주의(人本主義)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바뀌어도 인간이 구축하고 인간

---

78) 이 이념은 해방 후 미군정기에서 교육과정을 수립하던 교육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이를 최초 발의한 사람은 백낙준으로 개신교도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종교나 이념을 초월한 고귀한 가치를 담은 이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정영훈, 앞의 논문, 109면).

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정신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욕심과 경쟁에 사로잡혀 타인을 잊기도 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단체 등을 만들어 테두리 밖의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홍익인간’이 북극성처럼 우리 문화에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귀하다는 가르침을 한번쯤은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 종교, 맥락을 초월하여 빛나는 가치를 지닌 ‘홍익인간’을 배태한 이야기가 「단군신화」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의 중요성에 다시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단군신화」에서 유·불사상이 상호 교섭하는 많은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불사상은 우리 민족의 시원과 관련된 ‘홍익인간’과 상통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단군신화」는 그러한 면에서도 종교와 사상이 만나는 상징적인 지점이 될 수 있다. 화해와 통합과 상생이 중요한 시대를 만나, 「단군신화」가 현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울림은 자못 남다를 것이라 본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三國遺事』 「檀君神話」

『論語』 『孟子』 『大經』 『中庸』 『聖學十圖』

『金剛般若波羅密經』 『法華經』 『阿含經』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2. 논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예문서원, 2009.

고운기, 『일연을 묻는다』, 현암사, 2006, 79~356면.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광복, 2006, 26~144면.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1집, 한국문학회, 2005, 167~187면.

김병권, 「신라 노래 <풍요>의 불교적 담론 읽기」, 『퇴계학논총』 제31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155~181면.

류위자, 「단군신화의 교육적 의미와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교대 석사학위논문, 2001, 27~28면

무 비, 『법화경 법문』, 담앤북스, 124~467면.

박계옥, 「중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과 문학치료학적접근 - 「단군신화」를 사례로」, 『국제문화연구』 9권 1호,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16, 119~139면.

박지흥,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한겨레의 깊은 생각」, 『한글 새소식』 314호, 21면.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53~54면.

서영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교과 역량 설정 방향」, 『미래 사회에 대

- 응하는 국어 교과 역량 탐색(제68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2019, 32~35면.
- 선우미정, 「교육이념인 ‘弘益人間’의 유교철학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70호, 동양철학연구회, 2012, 181~220면.
- 신승혜, 「중국 결혼이민여성 대상 상호문화교육 방안 -한국과 중국의 신화를 활용하여-」 『중국학논총』 48호, 한국중국문화학회, 2015, 255~289면.
- 오윤선, 「한국문화교육 제재로서 설화의 선정과 교재화 방향」, 『고전문학과 교육』 31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113~143면.
- 윤성찬, 「단군신화의 제석과 불교의 제석친의 연관성 연구」, 『단군학연구』 제34호, 단군학회, 2016, 73~91면.
- 이동희, 『주자, 동아시아 세계관의 원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122면.
- 이은자, 「한국어교육을 위한 <단군신화>의 교육 방향」, 『Culture and Convergence』 39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285~312면.
- 임태홍, 「유교가 한국 건국신화에 미친 영향」, 『유교사상문화연구』 제29호, 한국유교학회, 2007, 269~301면.
- 임태홍, 「단군신화에 나타난 유교적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0호, 한국유교학회, 2007, 165~202면.
- 정보배, 「인성교육을 위한 고소설 교육내용 연구」, 『교사교육연구』56권 3호, 부산대 과학교육연구소, 2017, 292~308면.
- 정보배, 「판소리계 소설의 군자·보살형 인물을 통한 조선후기 소설 독자의 가치관 고찰」, 『동양정치사상사』 제18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141~186면.
- 정보배, 「완판 판소리계 소설에 형상화 된 왕도정치의 이상과 민중의 염원」, 『한민족어문학』 제8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9, 117~154면.
- 정영훈, 「홍익인간사상과 한국문화」, 『한민족연구』 제8호, 2009, 100~109면.
- 정혜승, 「국어 교사가 없는 국어 교실」에 대한 토론문」,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국어 교과 역량 탐색(제68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2019, 48면.

- 조동일, 「삼국유사의 기본특징 비교 고찰」, 『일연과 삼국유사(일연학연구원 편)』, 신서원, 2007, 18면.
- 최문형,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인간상과 한국교육의 지향처」, 『고조선단군학』 37호, 고조선단군학회, 2017, 281~311면.
- 최성욱,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해석」, 『교원교육』 33권 1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7, 131~154면.
- 학담 평석, 『한 권으로 읽는 아함경』, 한길사, 2015, 543~562면.
- 한용진, 「홍익인간의 문헌자료 비교 고찰」, 『한국교육사학』 15권, 한국교육사학회, 1993, 223면.
- 황패강, 『한국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6, 88~89면.
- 허정희, 「불교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단군사회의 사상」, 『윤리연구』 제49호, 한국윤리학회, 2002, 209~222면.
- 사이구사 미쓰요시(三枝充惠), 윤종갑 옮김, 『불교철학입문』, 경서원, 82면.
- Edward J. Shultz, 김범 옮김, 『무신과 문신』, 글항아리, 2016, 222~224면.

【Abstracts】

The study of character-type interpretation  
and literary education's Significance in Dangun  
Mythology through confucianism and buddhist Idea.

Jeong Bobae

This study focused on Hwanwoong and Unnyeo the main characters of Dangun mythology, who are very close to the ideal characters of Buddhism, Confucianism. Therefore, I would like to reinterpret Dangun myth as a human view of Confucianism and Buddhist thought, and draw out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it. The "Sanguk-Yusa" was a Buddhist monk representing Goryeo Period, which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honor at that time, but he also closely socialized with the scholars who had mastered "Hundred Schools of Thought". The Dangun myth, which we have seen through the Confucian Buddhist thought, is a story that reveals the commonality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more than any stories in the Sanguk-Yusa.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extracting the common human and world view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as a method of analyzing the works of Dangun mythology in Sanguk-Yusa.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these learners. In addition, I think that our people also have an opportunity to remind the true meaning of Dangun myth.

**Key Words** : Dangun Mythology, Il-yeon, confucianism and buddhist Idea. fusion thinking, Hwanwoong and Unnyeo.

이 논문은 2019년 05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